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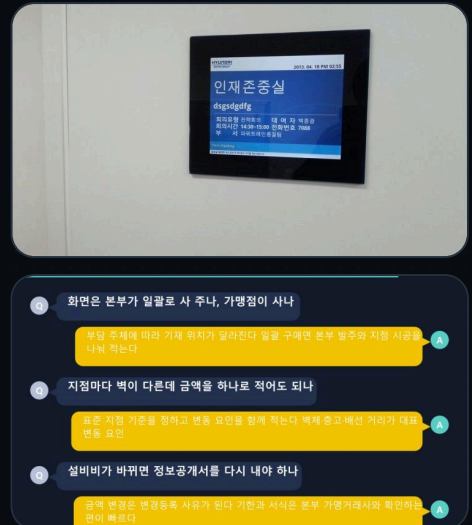
LED전광판

기술 가이드

2026-09-17 · (주)연우솔루션 작성 · 사진 9장

정보공개서 설비비, DID vs LED

사업연도가 끝나고 정보공개서 파일을 다시 연다. '가맹점사업자의 부담' 표, 설비·비품 칸에는 작년에 적어 둔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다. 그 한 줄을 보고 예비 창업자가 계약을 결정한다.



원문 수록 이미지 ·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

핵심 정리

- 01 같은 전면 폭 2.4m인데, DID와 실내 LED는 표가 다르게 채워진다
- 02 견적서를 표로 옮기기 전에, 지점마다 흔들리는 값을 먼저 센다
- 03 오픈 이후의 비용까지 적어야, 가맹점과 다투지 않는다

본문 속 수치

16~24시간

상업용 DID는 55·65·75·86·98인치로 나뉘고, 하루 16~24시간 연속 구동을 전제로 만든 패널이다.

2.4m

전면 폭 2.4m 벽 하나를 두고 구성은 세 갈래로 갈린다.

350니트

밝기는 350니트 이상이 기본이지만, 전면이 통유리이거나 화면이 창을 등지면 700니트급으로 올...

65인치

65인치 두 대를 가로로 붙이면 폭이 2.9m를 넘는다.

정작 오픈 현장에서는 화면 한 대를 달기 위해 벽을 뜯고, 배선을 새로 뽑는다.

표의 숫자와 현장의 견적이 벌어지는 자리는, 대체로 정해져 있다.

표에 적힌 설비비 한 줄이, 매장 벽면의 시공 범위를 결정한다

정보공개서의 설비비 칸은 예비 창업자가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리다.

그런데 '매장 사이니지 일체'처럼 뭉뚱그려 적으면, 읽는 쪽은 화면 본체 값만 떠올린다.

실제로 한 지점에서 나가는 비용은 일곱 갈래다.

적용 디스플레이

실내 LED 전광판 · 멀티비전·비디오월 · DID·사이니지 모니터 · 스트레치 디스플레이

구성 요소

CMS·스케줄 송출 · 콘텐츠 제작 · 3D 모델링·설계 · LED 컨트롤러·송신카드 · 미디어 플레이어·셋탑

진행 단계

현장 실측 → 구성 제안·설계 → 제작·발주 → 설치·시공 → 시운전·인수 교육 → 운영·유지보수

관련 솔루션

프랜차이즈 · 다지점 매장

Windows 10 지원 종료 · 노후 플레이어 전환

찾은 현장 출동

교육 · 대학 · 학교

이 가이드로 상담

☎ 010-2700-2648 · ✉ osskoreaing@gmail.com

원문 · 사진 전체: screenmaru.co.kr/blog/224414752378.html



연우솔루션
YEONWO SOLUTION

기술 가이드 752378